

# 무주군, '2주간의 멈춤' 총력

### 공무원 복무관리 특별지침·지역 곳곳 현수막 내걸어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무주군이 사회적 거리두기의 일환으로 시행 중인 '가족과 동료를 지키는 2주간의 멈춤' 실천을 확산시키기 위해 혼신을 다하고 있다.

공직 내부부터 정착시킨다는 계획으로 23일 전 실과소속면에 '공무원 복무관리 특별지침' 공문을 내려 세부 내용을 공유하고 대면 회의나 보고, 출장, 모임 또는 행사는 원칙적으로 금지하기로 했다.

또 사무실 등에서의 대인 접촉을 최소화하고 점심시간 시차 운용, 퇴근 후 바로 귀가, 발열·호흡기 유증상시 재택근무 또는 공가를 활용할 것, 코로나19 지역전과 국가 등지로 여행력이 있는 공무원 역시 자가 격리할 것 등을 권고했다.

무주군청 자체행정과 추후규 과정은 "코로나19의 전 세계 확산의 심각성을 실감하고 더 이상의 확산방지와 예방을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라며 "공직 내부에서부터 정착시키고 무주지역사회 전체로 확산시켜 코로나19 진정을 주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16일부터 점심시간 시차 운용과 식사 시 마주앉지 않기 등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해온 무주군은 군청 구내식당에 60cm높이의 유리 칸막이 설치를 완료하고 활용에 들어갔다.



무주군이 사회적 거리두기의 일환으로 시행 중인 '가족과 동료를 지키는 2주간의 멈춤' 실천을 확산시키기 위해 혼신을 다하고 있다.(구내식당 칸막이 설치)

또 22일에는 관내 종교 시설들을 돌며 예배 자제를 권고했으며 23일까지는 무주읍을 비롯한 6개 읍면의 기관 및 학교 주변, 버스 정류소, 도로변 등 20곳에 △집회와 다중집합소 방문금지, △마스크 착용과 손 씻기 등 개인 위생수칙 실천에 관한 내용을 담은 현수막을 설치했다.

유증상자 주변 10곳에는 △발열 등 유증상자 출입금지, △사람 간 거리두기 등을 내용으로 하는 현수막을 걸어 눈길을 끌었다.

한편, 무주군은 지난달 28일부터 무

주읍을 시작으로 관내 6개 읍면 주민들에게 면 마스크 20여만 장을 무상으로 공급했으며 각 가정에는 손소독제 1병씩을 공급했다.

관내 기관 및 사회단체에도 마스크 등 예방물품 3종 16만여 개를 배부했으며 터미널과 정류소, 공중화장실, 종교시설 등 다중이용시설들에 대한 소독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코로나19 발생 인접 지역 4곳에는 발열초소를 운영 중이며 선별진료소는 현재 무주군보건의료원 응급실 앞에서 운영 중이다.

/\*무주=전문선 기자

# 무주군, 지적측량 민원 1회 방문처리제 운영

### 코로나19 예방 위해 최소 3번

### 방문 절차-1번으로 윈스톱 해결

무주군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지적측량 민원을 윈스톱으로 해결하는 1회 방문처리제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지적측량 민원 윈스톱 1회 방문처리제는 지적측량 접수와 개발행위허가 및 토지이용 신청 등을 위해 최소 3회 이상 군청을 방문해야 했던 것을 접수 시점에서 사전 검토 후 일괄 작성토록 개선한 것으로 적용 범위는 토지분할 측량 및 복합적인 토지이용 신청 등이다.

무주군은 지적측량 접수 단계에서 한국국토정보공사와 군청 지적팀의 적극적인 협업과 신속한 행정업무 처리로 각종 신청서류 작성과 이행을 돕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무주군청 민원봉사과 지적팀 김성수 팀장은 "무주군에서는 코로나19 예방



무주군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지적측량 민원을 윈스톱으로 해결하는 1회 방문처리제를 운영한다.

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을 위해 민원 절차를 간소화시키는데 주력하고 있다"라며 "군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실천하는 적극적인 민원서비스

를 통해 코로나19 감염증으로부터 군민을 보호하고 군민의 편의를 돕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무주=전문선 기자

#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집중

### 장수군, 강화 방안 긴급회의 개최해 대응 방안 논의

장수군은 23일 회의실에서 장영수 군수 주재로 코로나19 관련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방안 긴급회의를 개최하고, 지역사회 확산 예방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장수군은 초·중·고 개학을 앞두고 단기간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전개하는 한편 부서별 점검반을 편성해 문화시설 및 체육시설, 종교시설, 유흥주점에 대해 집중 점검한다.

점검 결과에 따라 방역관리에 미흡한 다중이용시설은 영업중단 등 행정명령 조치 이행을 검토해 시행할 계획이다.

또 군민들을 대상으로 사회생활을 가능한 최소화하고, 2주 동안 최대한 집에 머물기, 사적 모임, 약속, 외출,

여행 등은 연기·취소하고 밀집된 장소에서의 활동을 최대한 금지할 것을 당부했다.

현재 장수군은 확진자 및 접촉자가 없는 상황에서 군민의 불안감을 조성하는 가짜뉴스와 유언비어의 확산을 막고 사회적 거리두기 등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마을방송, 군 홈페이지, SNS 등을 통해 지속적인 홍보를 펼치고 있다.

장영수 군수는 "아이들이 학교에서 안전하게 공부하고 생활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보름간의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며 "모든 군민이 한뜻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을 철저히 전개해 주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장수=고판호 기자

# 진안군, 우수후계 농업경영인 발굴

### 내달 22일까지 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진안군은 2020년 우수후계농업경영인 지원사업 대상자를 오는 4월 22일까지 모집한다.

전문농업인 육성을 위한 이번 사업은 후계농업경영인 중 우수한 자를 선발해 정책자금과 경영교육 등을 추가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청자격은 2015년까지 선정된 후계농업경영인 중 5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자가 신청 가능하며, 전북도 심의회를 거쳐 최종 선발할 예정이다.

우수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되면 영농경영 역량강화를 위한 경영교육

과 육성자금이 지원되며, 육성자금은 최대 2억원(연리 1%) 한도 내에서 5년 거치 10년 상환 조건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후계농은 진안군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 인력육성팀으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김필환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신청자격과 요건을 갖춘 후계농업 경영인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란다"며 "진안 농업 발전을 이끌어갈 우수후계 농업경영인을 발굴해 전문농업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진안=우태만 기자

# 무진장소방서, 산불예방대책 추진

무진장소방서(서장 박덕규)는 봄철 건조한 날씨와 바람으로 임야화재 위험이 증가함에 따라 봄철 산불예방대책을 펼친다고 밝혔다.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실내활동보다 야외활동이 많아지고 포근한 날씨가 지속됨에 따라 산행인구의 증가를 예상하고 있다.

이에 산불 예방을 위해 이달부터 오는 5월까지를 봄철 산불조심기간으로 지정하고 산불예방대책을 적극 추진한다.

주요 내용은 ▲산림 내 사찰 및 문화재 대상 합동 소방안전점검 및 화재 진압 훈련 ▲주요 등산로 대상·산불 및 산악사고 예방 캠페인 등 홍보 활동 강화 ▲산불 취약지역 현장 안전점검 및 순찰 강화 ▲논·밭두렁 태우기

사전신고 정착 및 인화물질 사전제거 시 소방차 지원 등이다.

최근 10년 전북 도내 산불은 봄철(3월~5월)에 전체 375건중 208건(56%)가 집중 발생했다.

산불의 주요 원인은 농번기 잡초 및 쓰레기 소각(224건)이 가장 많았고 그 외 담배꽂초, 불씨방치와 기타원인으로 나타났다. 부주의가 산불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다.

박덕규 무진장소방서장은 "산불 예방을 위해서는 지역 주민과 등산객 등 군민의 자발적인 협조가 중요하다"며 "산불 진압용 장비의 점검 및 정비 철저로 100%가동상태를 유지하여 소중한 산림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 지역 소식통

### 진안 백운면 의용소방대 새봄맞이 환경 정화

진안군 백운면 의용소방대(대장 이길상)는 지난 20일 남·여 의용소방대원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새봄맞이 환경 정화 활동과 코로나19 방역 활동에 나섰다.

이날 의용소방대원들은 쓰레기 무단투기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방치된 각종 영농폐기물과 쓰레기를 수거하고 코로나19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해 다수 이용객이 이용하는 감염 우려 장소에 방역작업을 실시했다.

이길상 의용소방대장은 "주요 도로변을 중심으로 깨끗한 백운 만들기에 지속적으로 동참할 예정이며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 지역사회 감염을 막기 위해 앞장서겠다"고 다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 장수군, 산림문화자원 보호수 정비사업 추진

장수군은 생태적으로 보존 가치가 높은 산림문화자원인 보호수를 대상으로 정비사업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보호수는 노목, 거목, 희귀목 등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나무로, 군은 느티나무 등 4개 수종에 43주(37개소)를 지정 관리하고 있다.

군은 올해 보호수 정비를 위해 18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생장 불량목 및 고사 우려목에 대해 외과 수술 등 체계적인 관리와 생육 증진을 위한 주변 정리 작업을 4월부터 실시할 계획이다.

또 2100만원의 군비를 추가 확보해 보호수의 수종 및 수령, 유래 등을 알리는 안내간판 13개소를 설치하는 등 모든 보호수에 대해 안내간판 설치를 완료할 예정이다.

문민섭 과장은 "보호수는 지역의 역사와 세월의 흔이 깃든 산림 문화자원으로 체계적으로 적극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장수군은 보호수 외에도 마을 숲 5개소와 노거수 10본에 대한 외과 수술과 주변 정비사업을 시행할 방침이다.

/\*장수=고판호 기자



## 우리가족 면역을 생각한 NK프로젝트

# N·1

엔·원



**산학 공동연구 프로젝트**

☑ **NK 프로젝트 N·1**

연세대학교 임상영양연구소 이종호교수 연구팀  
고려대학교 식품공학과 이명원교수 연구팀

특허받은 유산균으로 만든 기능성 발효유

☑ **NK프로젝트 N·1**

•nF1 + 카제이균 + 비피더스 유산균 함유

☑ **N·1이 NK세포에 주목합니다.**



푸르밀 NK프로젝트 홍보대사 **하지원**